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참석하시여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명맥에 영원한 생명력을 부여하는 위대한 당의 손길아래 년대와 세기를 이어 혁명가유자녀교육의 전당, 우리 혁명의 핵심골간육성기지로 자랑떨쳐온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이 창립 75돐을 뜻깊게 맞이하였다.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후대관에 받들려 줄기찬 발전행로를 펼쳐가며 만경대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는 불요불굴의 혁명가, 애국충신의 대부대를 키워 조선로동당과 국가, 혁명투쟁의 장성을 추동하고 조국과 혁명의 백년지계를 담보하는 초석을 굳건히 다진것은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의 장구한 력사의 긍지높은 총화이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가 10월 12일 만경대혁명학원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기념행사에 참석하시였다.

꿈결에도 빚고싶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교정에 모시고 뜻깊은 창립일을 경축하는 무상의 영광과 행복을 지니게 된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끝없는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김정은 원수님께서 만경대혁명학원에 도착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혁명가유자녀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태양의 열과 정으로 보살피시며 주체혁명의 혈맥을 굳건히 이어나가도록 절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원수님을 우리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올리였다.

김정은 원수님을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의 책임일군들이 영접하였다.

김정은 원수님께 혁명학원 원아들이 향기그옥한 꽃다발을 올리고 소년단 넥타이를 매어드리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참가자들에게 손저어주시며 창립일을 맞이한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의 교직원, 학생들, 졸업생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이 동행하였다.

혁명학원출신의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이 만경대혁명학원, 강반석혁명학원 일군, 교직원, 학생들, 졸업생들과 함께

기념행사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뜻깊은 기념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의 75년에 걸친 연혁사는 우리 당이 혁명선렬들에 대한 도덕의리에 끝없이 충실하여온 력사, 혁명위업계승에 명줄을 걸고 혁명가후비육성에 정성을 기울여온 력사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공화국의 력사, 정규적혁명투쟁의 력사와 맞먹는 혁명학원들의 성스러운 장로에 빛나는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혁명학원들이 주체혁명의 원기둥이며 우리 당의 성스러운 위업을 떠메고나가는 핵심골간들을 육성하는 원종장으로서의 중대한 사명과 기본임무에 맞게 교수교양에서 전국의 본보기, 선구자가 되며 혁명대오의 제일선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위업을 강력히 견인해나가기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 주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이 조선로동당의 학원으로서의 성격과 본래를 견결히 고수하고 빛내이며 민족만대, 혁명만대의 존엄과 번영을 억척으로 담보해나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지침을 안겨주시신 김정은 원수님을

우리리 우렁찬 환호와 박수갈채를 터쳐 주시였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을 기념하는 혁명학원 학생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오직 조선로동당만을 변심없이 받들고 따르며 주체혁명위업을 결사옹위해갈 원아들의 충성의 열정과 기쁨이 용솨솨치는 담찬 모습에 기쁨과 만족을 금치 못하시며 손을 높이 드시여 격려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만경대혁명학원 혁명사적관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세상에 유일무이한 혁명가유자녀교육의 최고전당, 우리 위업의 억년 청청함을 담보하는 이런 위대한 혁명의 집을 가지고 혁명의 원피출기를 줄기차게 이어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가장 큰 재부이고 더없는 공지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혁명가유자녀들을 선렬들이 지녔던 사상과 신념, 충실성의 전통을 역세게 이어가는 견결한 투사들로 알차게 키워 우리 혁명의 핵심중의 핵심이 되게 하고 전진과 발전의 선구자가 되게 하는것이 당중앙의 혁명가후비육성

사상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 원수님께서서는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의 교직원, 학생들이 만경대의 물과 공기를 마시고 백두의 넋을 지니며 성장하는 조선로동당의 참된 아들딸답게 혁명가유자녀의 근본을 언제나 잊지 않고 당의 위업수행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그들과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과 축포가 터져오르고 《김정은》, 《결사옹위》의 합성이 하늘 땅을 뒤흔들며 울려 퍼지였다.

만경대혁명학원과 강반석혁명학원창립 75돐 기념행사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지는 혁명가유자녀들에 대한 위대한 김정은 원수님의 한량없는 믿음과 사랑을 운명의 피줄로 간직하고 당중앙의 사상과 령도에 절대충성하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투쟁에 헌신분투해나갈 계승자들의 드높은 열의와 세대가 바뀌어도 더더욱 굳건해지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성과 불패성을 뚜렷이 파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어머니당이 우리 인민에게 안겨준 또 하나의 사랑의 선물

경사로운 10월의 명절을 맞으며 련포온실농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몸소 준공레프를 끊으시였다

대규모남새생산기지인 련포온실농장 준공식이 10월 10일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심장으로 받들고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은 련포장조 정신, 련포불바람을 일으키며 불과 230여 일동안에 사람들이 리상으로만 그려보던 거대한 온실농장을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280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850여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들과 지방의 특색을 살린 1,000여 세대의 살림집, 학교, 문화회관, 종합봉사시설 등이 구획별로 이채롭게 조화되어 새시대의 문명을 과시하는 웅근 하나의 대농장지구가 가슴뿌듯한 장관을 펼쳐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식장에 도착하시자 축도가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의 명령을 빛나게 관철하여 무연하던 벌판에 회한한 온실바다를 펼쳐놓은 전체 군인건설자들에게 따뜻한 축하와 전투적격려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유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업에 따라 동해기슭에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보배농장을 훌륭히 일떠세운 인민군장병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인사를 보냈다고 하면서 경사로운 10월의 명절과 더불어 세계최대규모의 온실남새생산기지가 성대히 준공하게 된것은 함경남도 인민들만이 아닌 온 나라의 기쁨이고 경사



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과 한약속,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결실을 보아야 하는 중차대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부지확정과 력량편성, 설계와 시공, 자체보장문제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주도록 하시며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고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련포온실농장의 준공은 위대한 당중앙과 사상과 뜻, 승결과 보복을 같이하는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영웅적투쟁

과 우리 국가특유의 국풍인 군민대단결의 힘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우리의 힘, 우리의 손으로 더 좋은 레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계속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준공레프를 끊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인건설자들과 군중들에게 오래도록 손저어주시며 따뜻한 담례를 보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함께 련포온실농장을 돌아

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가없이 펼쳐진 온실바다를 부감하시면서 대규모의 현대적인 온실농장이 일떠섬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에서 큰 몫을 맡아 수고가 많은 함흥시의 로동계급과 과학자들, 함경남도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정상적으로 공급할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불과 몇달동안에 이처럼 회한한 대농장지구를 눈앞의 현실로 펼쳐놓은것은 오직 우리 인민군대만이 창조할수 있는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거듭

치하시면서 우리 당의 인민사랑을 심장에 새겨안고 인민을 위한 거창한 창조물을 일떠세우는데서 혁명군대 지휘성원으로로서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한 건설부대 지휘관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매남새온실을 비롯한 생산건물들을 돌아보시면서 남새 품종을 더욱 늘이고 온실면적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등 남새생산과 경영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보다 높이며 증명온실농장과 생산경쟁을 벌리면서 실지 함경남도인민들이 덕을 보는 농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의 자연기후조건에서 인민들에게 남새를 풍족히 보장하자면 련포온실농장과 같은 대규모의 온실농장을 각 도에 건설하고 남새생산의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련포지구에서 공산주의농촌마을을 보게 하여야 한다고, 련포온실농장을 본보기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농촌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신성있게 추진하자는것이 당중앙의 구상이라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련포전역에서 무한한 충실성과 결사관철의 헌신적투쟁기쁨을 발휘하여 올해 당과 국가의 최종대 건설정책과제를 당에서 정해준 기일에, 당에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완벽하게 수행한 군인건설자들에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주시였다.

련포온실농장의 준공은 어려울수록 더욱 강렬하고 뜨거워지는 조선로동당의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 증철되는 시련속에서도 세기를 주름잡으며 전면적부흥으로 비약하는 공화국의 필승불패의 위상을 다시 한번 만방에 과시하는 의의깊은 계기로 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지도하시였다

나라의 전쟁억제력과 핵반격능력을 검증판정하며 적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기간에 진행되였다.

우리 군대의 해당 군사훈련은 미해군항공모함과 이지스구축함, 핵동력잠수함을 비롯한 연합군의 대규모해상전력이 조선반도수역에서 위험한 군사연습을 벌리고있는 시기에 진행되였다.

미국은 우리의 국가핵무력정책법화에 대처한다는 미명하에 남조선에 대한 확장억제력제공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한데 기초하여 그 첫 시범으로 9월 23일 조선반도수역에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간》호 타격집단을 끌어들이는데 이어 26일부터 29일까지 러나홀간에 걸쳐 조선동해에서 남조선과의 연합해상

훈련을 벌려놓았으며 30일에는 일본, 남조선과의 연합반잠전훈련을 강행하였다.

10월 6일에는 조선동해수역을 떠났던 핵항공모함 타격집단을 재진입시켜 연합미사일방위훈련을, 연이어 7일과 8일에는 해상연합기동훈련을 벌려놓음으로써 공공연히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지역의 긴장수위를 더욱 고조시키는 유감스러운 태도를 고취하였다.

이 기간 남조선군부의 수장이라고 하는자는 우리 정권의 그 무슨 《생존》을 운운하며 비리성적이고 도발적인 망발로 로골적인 대결의지를 드러내었다.

불가피한 정황에 대처하여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 9월하순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치군사적정세와 전망을 토의하고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의

신뢰성과 전투력을 검증 및 향상시키고 적들에게 강력한 군사적대응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각이한 수준의 실천화된 군사훈련들을 조직진행할것을 결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군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이 훈련을 참관하였다.

9월 25일 새벽 우리 나라 서북부 저수지수증발사장에서 전술핵탄두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이 진행되였다.

훈련의 목적은 전술핵탄두반출 및 운반, 작전시 신속하고 안전한 운용취급질서를 확정하고 전반적 운용체계의 민음성을 검증 및 숙달하는 한편 수증발사장들에서의 탄도미사일발사능력을 숙련시키고

신속반응태세를 검열하는데 있었다.

발사된 전술탄도미사일은 예정된 궤도를 따라 조선동해상의 설정표적상공으로 비행하였으며 설정된 고도에서 정확한 탄두기폭민음성이 검증되였다.

또한 실천훈련을 통하여 계획된 저수지수증발사장 건설방향이 확정되였다.

9월 28일 남조선작전지대안의 비행장들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진행된 전술핵탄두탑재를 모의한 탄도미사일발사훈련에서도 핵탄두운용과 관련한 전반체계의 안정성을 검증하였으며 9월 29일과 10월 1일에 진행된 여러 종류의 전술탄도미사일발사훈련에서도 해당 설정표적들을 상공폭발과 직접 정밀 및 산포탄타격의 배합으로 명중함으로써 우리 무기체계들의 정확성과 위력을 확증하였다.



10월 4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속되고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에 대처하여 적들에게 보다 강력하고 명백한 경고를 보낼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신형지상대지상중장거리탄도미사일로 일본령도를 가로질러 4,500km계선 태평양상의 설정된 목표수역을 타격하도록 하였다.

10월 6일 새벽 적의 주요군사지휘시설타격을 모의하여 기능성전투부의 위력을 검증하기 위한 초대형 방사포와 전술탄도미사일명중타격훈련이 진행되었으며 9일 새벽 적의 주요항구타격을 모의한 초대형 방사포사격훈련이 진행되였다.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들의 발사훈련을 통하여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만큼 타격소멸할수 있

게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효과성, 실천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핵전투무력이 전쟁억제력의 중대한 사명을 지닌데 맞게 임의의 시각, 불의의 정황하에서도 신속정확한 작전반응능력과 핵정황대응태세를 고도로 견지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번에 진행된 실천훈련들을 통해 임의의 전술핵운용부대들에도 전쟁억제와 전쟁주도권 쟁취의 막중한 군사적임무를 부과할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되였다고 하시며 이는 우리의 전쟁억제력가동태세에 대한 검증인 동시에 국가 핵방어태세의 철저한 준비상태의 신뢰성을 증명한

계기로 되며 적들에게 우리의 핵대응태세, 핵공격능력을 알리는 분명한 경고, 명백한 과시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금 이 시각도 적들의 분주한 군사적움직임이 감지되고있다고 하시면서 미국과 남조선정권의 이러한 지속적이고 의도적이며 무책임한 정세격화행동은 부득불 우리의 더 큰 반응을 유발시키게 될뿐이라고, 우리는 정세위기를 항시적으로 엄격히 주시하고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적들이 군사적위협을 가해오는속에서도 여전히 계속 대화와 협상을 운운하고있지만 우리는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우선 우리는 더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와 행동으로써 방

대한 무력을 때없이 끌어들이 지역의 정세를 격화시키는 적들에게 더욱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안전환경과 간과할수 없는 적들의 군사적움직임을 빠짐없이 예리하게 주시하며 필요한 경우 상응한 모든 군사적대응조치를 강력히 실행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전투무력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사수의 중대한 의무를 자각하고 최강의 핵대응태세를 유지하며 더욱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 구분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반도정세의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여 적들의 도발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군사훈련들을 조직진행 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선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공군비행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이 10월 6일과 8일에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군사훈련들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이 훈련을 참관하였다.

10월 6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과 서부지구 공군비행대들의 합동타격훈련이 진행되였다.

합동타격훈련은 적군사기지를 모의한 섬목표에

대한 공군비행대들의 중거리공중대지상유도폭탄 및 순항미사일타격과 각종 근접습격 및 폭격비행임무를 수행한데 이어 전선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순차별 화력타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훈련을 통하여 전선포병들과 전투비행사들의 작전동원준비상태와 전투실력이 불의적으로 엄격히 검열 되였으며 결과 유사시에 대비한 작전준비태세의 정확성과 고도의 실전능력이 뚜렷이 실증되였다.

10월 8일 조선동해에 재진입한 미해군항공모함을 포함한 연합군해군의 해상연합기동훈련이 감행되고 있는 정세배경하에서 사상 처음으로 150여대의 각종 전투기들을 동시출격시킨 조선인민군 공군의 대규모 항공공격종합훈련이 진행되였다.

훈련에서는 공군사단, 련대별 전투비행사들의 지상목표타격과 공중전수행능력을 판정하고 작전대상물에 따르는 공습규모와 절차와 방법, 전법을 재확충하며 비행지휘를 숙련하고 부대별 협동작전 수행능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신형공중무기 체계들의 시험발사를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이어 이날 밤 적작전비행장타격을 모의한 전선 동부지구 장거리포병구분대들의 대집중화력타격훈련이 진행되였으며 제시된 전투정황에서의 신속대응 능력과 군사적위력, 무기체계들의 전투적성능을 다시 한번 확증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미더운 포병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전투력강화의 나날들에

부단히 련마해온 우수한 실전능력과 우리 군대특유의 기질적인 용감성과 애국심을 남김없이 발휘한데 대하여 높이 치하하시면서 불의적인 실전상황에도 능동적으로 정확히 대처할수 있게 사상정신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된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모든 장병들이 투철한 주적관, 주체적인 전쟁관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조국의 최전방과 우리의 자주권을 무적의 군사력으로 철통같이 지켜나갈것을 호소하시면서 훈련에 참가한 군인들을 사랑의 한뼘에 안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대규모항공공격종합훈련에 참가하여 혁혁한 군공을 세운 전투비행사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원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10월 9일 대규모항공공격종합훈련에 참가하여 혁명적당군의 필승의 기개를 만천하에 떨치고 당중앙의 권위를 사수한 전투비행사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였다.

조선로동당의 작전적구상에 따라 전격적으로 전개된 전군사에 전례없는 대규모의 항공공격종합훈련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불굴의 전투정신을 발휘하며 인민공군의 위용을 만방에 떨치고 당의 훈련명령을

빛나게 관철한 영웅한 전투비행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뜻밖의 부르심을 받고 꿈만같이 당중앙트락에 들어선 끝없는 행복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오시자 전체 전투비행사들은 천재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명군술, 강철의 담력과 배짱으로 강대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절대적존엄과 국위를 세계만방에 힘있게 떨쳐가시는 백전백승의 천출명장을 우리러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며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따듯이 답례 하시며 당과 수령을 위하여,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칠 결사의 각오를 안고 당중앙의 명령일하에 일제히 총출격하여 무적의 용맹을 떨친 전투비행사들의 혁혁한 군공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의 영광을 진감한 용맹한 비행대들의 멸적의 폭음은 조국수호의 가장 빛나는

별이 되어 당과 혁명을 철벽으로 보위해가는 조선인민군 공군의 전투력의 일대 파시로 조국청사에 기록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전투비행사들이 우리 당의 창건과 함께 승리와 영광의 년륜을 새기며 충성의 항로를 변함없이 날아온 우리 공군특유의 훌륭한 전투정신, 투쟁기질을 더 높이 발휘하여 조국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가기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시험 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성된 정세와 혁명의 요구로부터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비상히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실천조치들이 추진되고있는 가운데 10월 12일 장거리전략순항 미사일시험발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당중앙군사위원회 성원들이 시험발사를 참관하였다.

시험발사는 조선인민군 전술핵운용부대들에 작전 배치된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의 전투적성능과 위력을 더욱 제고하고 전반적작전운용체계의 믿음성과 기술 적안정성을 재확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발사된 2기의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들은 조선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비행궤도를 따라 1만 234s를 비행하여 2,000km계선의 표적을 명중타격 하였다.

성공적으로 진행된 시험발사를 통하여 무기체계 전반의 정확성과 기술적우월성, 실천효과성이 완벽 하게 확인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시험발사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면서 임의의 무기체계에 의한 무조 건적이고 기동적이며 정밀하고 강위력한 반격으로 적들을 일거에 제압할수 있는 철저한 실천준비태세를

또다시 립증한 우리 핵전투무력의 고도의 반응능력 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오늘 올린 미사일 폭음은 적들에게 또다시 보내는 우리의 명명백백한 경고이며 우리 국가의 전쟁억제력의 절대적인 신뢰성과 전투력에 대한 실천적인 검증이고 뚜렷한 과시로 된다고 다시한번 강조하시면서 우리는 임의 시각에 도래하는 그 어떤 엄중한 군사적위기, 전쟁위기도 단호히 억제하고 주도권을 완전히 쟁취 할수 있게 핵전투무력운용공간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끊임없는 국가방위력 강화는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사수를 위해 조금도 드릴수 없는, 드리어서는 안될 일관하고 불변 한 우리의 혁명방침, 투쟁기조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는 국가핵전투무력의 무한대하고 가속적인 강화발전 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공화국핵전투무력이 더욱 정확하고 확신성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나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시험발사성공 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 었다.

본사기자



위대한 인민사랑이 펼쳐진 함남평의 희한한 온실바다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창건 기념일에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또 하나의 크나큰 선물인 세계최대의 대규모온실생산지 리포온실농장이 준공되어 온 나라를 크나큰 기쁨과 환희에 설레이게 하고 있다.

그 규모와 내용, 형식에서 세상 어디에도 볼수 없는 이런 희한한 온실남새생산기지 리포온실농장을 위함이라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결실을 보고야마는 절세위인의 한없이 숭고한 인민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정체이다.

수백정보의 드넓은 부지에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된 850여동의 수경 및 토양온실들과 지방의 특색을 살린 1 000여채의 살림집, 학교, 문화회관, 종합방사시설 등이 구획별로 이채롭게 조화되어 장쾌한 경관을 이룬 리포온실농장의 전경을 신문과 방송으로 접한 온 나라의 각계층 인민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있다.

《리포온실농장의 경관을 TV로 접하면서 우리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지극한가를 다시금 뼈부로 느끼었다.》, 《지금과 같이 어렵고 힘든 때에 저렇게 큰 온실농장을 인민에게 선물로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의 무한대한 세계가 저 가없이 펼쳐진 온실농장에 그대로 어려있다고 생각한다.》, 《리포온실농장에는 바로 우리 농업근로자들의 꿈과 리상이 집약되어있으며 우리 인민에게 크나큰 행복만을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응지가 깃들어 있다.》...

온 나라 인민이 격찬해마지 않는 이처럼 희한한 세계최대규모의 온실남새생산기지, 새시대 본보기문화농촌이 동해기슭에 솟아날수 있는것은 인민생활향상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들어켜보면 지금으로부터 세해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증평온실농장건설을 작전하시던 그때 벌써 리포지구에 대규모온실농장 건설할것을 구상하시였다.

나라의 중요한 공업도시이고 과학도시인 함흥시와 함경남도인민들의 남새보장문제를 언제나 증대사항으로 관심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포지구에 수만의 생산능력을 가진 대규모남새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동시에 선진적인 농업기술을 보급하는 실물교육장으로, 우리식 농촌명명창조의 새로운 거점으로, 명실공히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장으로 건설하며 이를 기준으로, 봉화로 하여 나라의 전반적농촌발전을 더욱 강력하고 확실성있게 추진할실 원대한 계획을 무르익히신것이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부전선의 중요군사기지를 함경남도인민들을 위해 복무하는 현대적인 남새생산기지로 전환시키실 통이 큰 결단을 내리시고 주제108(2019)년

4월 몸소 현지를 답사하시면서 대규모온실농장,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의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그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리포지구 대규모온실농장건설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새로운 5개년계획의 두번째 해인 2022년의 주요국가건설정책과업들중의 하나로 리포온실농장건설이 정해지는데 맞게 리포지구에 나오시어 건설에정지를 현지에서 료해하시며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몸소 시공중, 건설중이 되시어 눈조차 뜨기 힘든 세찬 모래바람속에서 건설부지를 확정해주시고 온실농장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러시고도 리포온실농장건설작공식에 참석하시어 격동적인 연설을 하시는데 이어 작공의 첫삽을 뜨시고 직접 발과단추를 누르시였다.

이렇게 되어 리포온실농장건설은 인민을 위한 가장 중대한 사업, 한시도 미룰수 없는 제1차적인 사업으로 되

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을 소중히 새겨안은 인민군건설자들은 작공의 그날부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치열한 백열전을 벌리였다.

하지만 올해는 력사에 료례없는 극난들이 공화국의 앞길을 걸음걸음 가로막았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봉쇄압박속에 돌발적인 악성전염병사태가 조성되고 거기에 혹심한 자연재해까지 겹쳐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과 한 약속,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어이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드림없는 의지를 안으시고 최대비상방역기간에도 중요대상건설을 중단없이 내밀도록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지난 5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나라앞에 조성된 방위역위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시고 리포온실농장건설과 같은 인민을 위한 우리 당의 숙원사업들을

제기일안에 손색없이 완성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였다. 그 사랑속에 리포온실농장건설은 힘있게 추진되고 건설장에서는 새로운 리포창조정신, 리포불바람이 일어나 불과 230여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완공하는 기적이 창조될수 있었다.

인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게 된것이 그러도 기쁘시어, 당창건기념일에 인민들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안겨주게 된것이 너무도 만족하시어 완공된 리포온실농장을 또다시 찾으시고 몸소 준공식장에서 준공테이프를 끊어주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인민이 바라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고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위민헌신의 령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고와 심혈속에 지난 기간 이 땅우에는 얼마나 많은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이 솟아났던가.

문수물놀이장, 미림송마구락부,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마식령스키장, 연풍과학자휴양소, 과학기술전당, 위성과학자주택지구, 삼지연시,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류경안과종합병원, 육류자동병원...

이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같이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먼 후날에도 손색없이 훌륭하고 기념비적인 창조물들이다. 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적이면서도 선련리성, 선미학성이 철저히 보장된 기념비적건축물들에는 인민의 꿈과 리상을 최상의 경지에서 꽃피워주시려는 절세위인의 용지가 비껴있다.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그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과 한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의지에 받들려 삼지연시가 인민의 리상도시로 전변되고 평양에는 1만세대의 대규모송화거리와 주제건축의 비약적발전상이 응축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솟아났으며 리포지구에 세계최대규모의 온실농장, 사회주의문화농장이 일떠설수 있는 것이다.

생산면적만 해도 100정보에 달하고 생산능력이 수만에 이르는 세계최대규모의 온실바다는 남새생산의 현대화, 집약화, 공업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으며 각양각색의 소총, 다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조화를 이루어 한쪽의 그림같이 아름다운 대규모농장마을은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의 본보기, 기준으로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인민들에게 안겨주시는 문명과 행복의 세계는 그 폭과 깊이를 헤아릴수 없는 무한대한것이다.

지금의 극난한 환경속에서도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을 제시하시고 통이 큰 목표와 휘황한 앞날을 설계하시며 활기찬 국가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과감히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을 모시어 공화국은 그 어떤 격난도 과감히 뚫고헤치며 사회주의전면적발전의 길로 더욱 힘있게 나아갈것이다.

본사기자 주일봉



탁월한 사상리론의 거장

농촌혁명의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시여

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농촌문제해결을 매우 중시하고있다. 한것은 농촌을 사회주의강국의 체모에 맞게 개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떠나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과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농촌혁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위원회에서 새 세계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휘황한 전망과 웅대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위원회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우리식 사회주의 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자》에서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함에 있어서 농촌문제해결의 절박성과 변혁적의의를 심오히 분석평가하시고 공화국의 모든 농촌을

로동당시대에 어울리게 근본적으로 개조변혁하기 위한 웅대한 목표와 투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히신 농촌혁명강령에는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와 필요성, 그 과업과 실현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다.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것을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로 정해주시였다. 다시말하여 전체 농업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든든히 무장한 공산주의적인 간으로 만들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근본적인 개조변혁을 이룩함으로써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한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촌혁명강령에서 농업근로자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만드는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주되는 과업으로, 그 승리를 위한 관건적요인으로 내세우시였다. 또한 농업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자혁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재해성이 상기후에 대처할수 있는 과학적인 농사체제와 방법을 확립하며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하는것을 비롯하여 나라의 농업생산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수 있는 정책적문제를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변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국가체제주의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문명을 이룩할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농촌혁명강령은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에 관한

사상리론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심화발전시켜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시대를 열어 나갈수 있는 길을 휘황히 밝힌 위대한 농촌건설강령이다. 또한 공화국의 모든 농촌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사회주의적으로 훌륭히 전변시켜 인민들의 세기적수확과 리상을 앞당겨 실현하고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다그쳐나갈수 있는 위력한 실천의 무기이다.

이 휘황한 농촌혁명강령이 제시된 올해에 공화국에서는 농촌혁명수행을 담보하는 농업생산력증대와 지방공업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도처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농촌에서 교육수준을 도시의 수준에 부단히 접근시키기 위한 사업과 수도의 문화, 로동계급의 문화, 시대의 본보기문화를 지방과 농촌에 보급하기 전과, 확대하여 농업근로자들이 선진문명을 접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사업들

이 활기있게 진행되고있다. 특히 시, 군들에서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려는 조선로동당의 농촌건설정책을 높이 받들고 농촌마을들을 자기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현대문명이 반영되게 건설해나가고있다.

지금 공화국의 모든 농촌들에서는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갈 때 자기 지방의 얼굴이 달라지고 농촌의 어제와 오늘이 뚜렷이 대비되는 진보와 변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며 바로 여기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진면모가 나타나게 된다. 이는 확신을 안고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인 발전과 농촌진흥의 휘황한 전진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전개해나가고있다.

함성식

인민을 위한 현지도강행군

● 불철주야로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휴식을 모르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원수님께 인제인가 일군들이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했을 때의 일이다.

● 한동안 아무 말씀 없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자신께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수 많은 단위들과 인민군부대들을 현지도하신편에 대하여 조용히 위유시였다.

●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

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자신께서 맨 앞장에서 관철해나가야 누가 대신해주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 인민들을 찾아, 병사들을 찾아 쉬임없이 걸으시는 현지도의 길! 바로 그 길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많은 단위들과 인민군부대들을 현지도하신편에 대하여 조용히 위유시였다.

●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나라를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완공단계에 이른 류경원을 찾으신 어느날이었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온도가 90°C 되는 한중칸도 돌아보시였다. 건물안의 더운 공기만 해도 숨이 막힐 지경인데 순간에 땀방울이 내뿜는 한중칸안에서 유리벽체를 만져 보시며 열손실을 철저히 막도록 자그마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어 원형유조도 보여주시며 물놀이와 물

● 소독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맹실에는 들어가지 말아주시것을 일군들이 간절히 바랐건만 그이께서는 일없다고 하시며 맹실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였다. 그러신 후 일군들에게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명심하고 완공되는 날까지 일을 잘하여야 하겠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 위민헌신의 발걸음 ●

형제애를 넘어서는 화해의 힘

성황을 이룬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



공화국의 각지에서 따라 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 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명제품, 명상품의 품종을 확대해나가고있는 속에 얼마전 제13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가 전례없는 규모로 특색있게 진행되었다.

중양과 지방의 500여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출품한 2,550여종의 133만여점의 다양한 제품들이 출품된 이번 전시회는 중첩되는 시련과 역경을 박차고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공화국의 경제발전전모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출품한 송도원종합식품공장의 전시대에서도, 산골특유의 향취가 스며들어있는 차제들과 산나물가공품들을 내놓은 장차산종합식품공장의 전시대에서도 이런 물음은 계속되었다.

공화국은 온 사회가 덕과 정으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이다.

아파하는 사람은 뜨겁게 위해주고 불편해하는 사람은 부축해주며 힘을 아끼는 사람과 사심없이 도와주는 사람과 정이야말로 공화국특유의 국풍, 사회적풍조이다. 이제 언급하게 될 이야기가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락랑구역 통일거리1동에 살고있는 김득옥로인은 예전에 한가지 고민거리가 있었다.

언제인가 김득옥로인은 길을 가다가 뜻밖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바로 그때 지나가던 한 운전사가 그를 자기 차에 태워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귀한 약까지 마련해주었다.

그후 의식을 회복하고 감동깊은 사연을 전해들은 로인은 눈물이 젖어 들었다.

그를 수색하고 고마운 사람을 꼭 찾아 인사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운전사가 자기의 이름도 대주지 않고 조용히 떠나간것으로 하여 그의 행처를 찾기가 몹시 힘들었다고 한다.

병원에서 퇴원한 김득옥로인은 단념하지 않고 그 운전사를 찾아 여기저기 수소문하였다.

고마운 사람을 찾아 하루 또 하루... 하지만 그를 찾을수 없었던 로인은 최후로 마음을

김할수 없었다. 그가 자기를 구원해준 운전사에게 대해 알고있는것이 있다면 소형버스의 운전사라면 충분이었다.

너무도 빈약한 자료였지만 로인은 여러 단위에 알아보았다.

하지만 종시 그 운전사를 찾을수 없었다. (기어이 운전사를 찾아야 하겠는데...)

드디어 로인은 자기가 쓰러졌던 장소 주변의 마을사람들로부터 당시 상황과 소형버스의 번호를 알게 되었다.

그에 기초하여 그는 자기를 구원해준 고마운 사람인 석전영에군인인쇄공장의 김기훈운전사를 찾게 되었다.

《운전사동무, 그런 일을 하고 이름 석자 남겨두면 못손대던가. 내가 바로 보름전에 길가에 쓰러졌던 그 늙은이요. 감사의 인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로인의 격정적인 말에 김기훈운전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였을것입니다. 부디 좋은 세월엔 건강관리 잘하여 오래오래 장수하십시오.》라고 전담당어 말하였다고 한다.

정녕 그것은 남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여기며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것이 국풍으로 되고 있는 공화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감동적인 화폭이었다.

본사기자 림광훈

《누구나 그렇게 하였을것입니다》

자기 단위의 열거가 살아나기

전시회가 시작된 첫날부터 평양제1백화점은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전시회장을 찾은 우리는 어느 전시대부터 둘러야 할지 망설이었다. 그만큼 눈길이 닿는 곳마다 모두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류달리라는 사람들로 흥성이어 전시대가 있었다. 다름아닌 통약산비누공장전시대였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각종 샴푸와 린스, 세척제들에 대한 손님들의 수요가 높았다. 그 이유는 설이 좋은데 있었다.

인민들의 기도와 특색, 취미에 맞게 만든 각종 화장품들이 출품된 평양화장품공장,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전시대에서도 사람들

구에 귀를 기울이고 새것을 지향하여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온데 있습니다.》고 말하였다.

《지방공업제품들이 훌륭니까?》

이번 전시회를 이채롭게 장식한것은 각 도들에서 출품한 지방특산물들이었다. 해나물을 가공하여 만든 산나물제품들이 있는가 하면 수산물가공품, 당과류와 같은 식료품들도 있었다.

건강에 좋은 량강도의 특산물인 들깨가공제품도 눈에 띄었다. 산골, 오미자, 벌꿀오미자, 익모초가루 등을 전시한 자강도천연건강제품생산사업소의 전시대도 사람들이 즐겨 찾았다.

전시회장에서 색깔과 무늬가 고운 수지제품들을 끌라잡고 어느 공장에서 만든 제품인가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다. 알고보니 강서구역사업관리소에서 출품한것이었다.

이곳 관리소에서는 100여종에 1만여개의 각종 수지제품들을 출품하였는데 대다수가 강서구역의 가내작업반원들이 생산한것이라고 한다.

함주대성식사도구공장에서 생산한 숟가락, 젓가락,

신의를 넘겨다보겠는가

사람들로 붐비는 전시회장에서 한사람이 가방을 비롯한 제품들을 안고 호호한 마음으로 전시회장을 나서고 있었다. 우리는 그에게 어떤 제품들을 샀는가고 물었다.

문수봉화피복공장의 계절옷, 함흥편직공장의 남자내의, 평양대중도끼가공공장의 털모자와 목도리 그리고 통일화장품생산소의 향수, 갈림길보통경공업생산소의 구두약...

이를 통해 국내산제품들이 사람들속에서 수요가 높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이어 평양자동차기공공장의 전시대에 둘러니 전기담가마, 전기다리미, 선풍기들도 있었다. 모두 공장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것이라고 한다.

국내산자재로 생산한 새롭고 특색있는 가정용제품들을 전시한 평양가금설비공공장전시대에서도 참관자들에게 자기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가득 안겨주고있었다.

신발전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사기자 홍범식



경기장에서 만난 바드민턴 애호가들

해성처럼 나타난 선수

남조선에 있었더라면

얼마전 공화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속에 평양시 년로자 및 애호가들의 바드민턴경기, 그 호가들의 바드민턴경기가 진행되었다. 년로자단체경기, 애호가경기, 년로자애호가혼합경기로 진행된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대중체육활동을 통하여 평시에 편안한 바드민턴기술을 잘 보여 주었다.



동대원구역 동진2동에 살고있는 김학실(74살) 할머니에게는 평양시 년로자 및 애호가들의 바드

민턴경기에서 받은 5개의 메달들이 있다. 그는 대중체육활동의 나날에 림마한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2017년부터 해마다 평양시 년로자 및 애호가들의 바드민턴경기에서 1등을 비롯하여 5차례나 순위에 입선하였다. 이번 년로자애호가혼합경기에서 상대편 선수를 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

의 바드민턴경기에 참가한 리동매녀성은 우승 후보자로 지목되는 선수들 손쉽게 이겨 많은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냈다. 속도와 반응이 빠르고 좌우기동이 원활한 그 높이가 조약하면서 강타하면 막아내기가 쉽지 않다. 년로보장을 받은 후 몸치수려한 모란봉에서 바드민턴을 치면서 몸을



이번 경기에서 특별히 사람들의 주목을 끈 선수가 있었다. 그가 바로 올해 77살 난 정규진선수이다. 30여년전 저주로운 남조

선사회를 떠나 공화국의 품에 안긴 그가 로당익장하여 박력있게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관람자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년로자애호가혼합경기에서 출전한 그는 앞선에서의 밀어치기, 살짝공, 강타 등 민첩한 동작과 세련된 기술로 연속 점수를 올리였다. 경기성과를 축하해주는 사람들에게 정규진선수는 이렇게

대중체육활동의 나날에

며 치렬하게 공방전을 벌리는 모습은 응원자들과 관람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하였다. 년로한 나이에도 젊은 사람 못지 않게 열기왕성하여 바드민턴을 치는 그에게 사람들이 이제는 위험위험하라고 권고할 때마다 그는 말한다. 바드민턴을 떠난 생활의 량만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고.



튼튼히 단련하고 실력을 쌓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그의 목표는 다음에 있는 경쟁이 될 녀자단체경기에서 패권을 쥐는 것이다.

남조선에 있었더라면

말했다. 《내가 남조선에 있었더라면 일흔일곱살은 고사하고 예순살도 넘기지 못했을것입니다. 또 오늘처럼 기쁨과 량만에 넘쳐 바드민턴경기에 참가하지도 못했을것입니다. 공화국이야말로 새 삶을 안겨주고 황혼기에도 청춘에 살게 해주는 정말 좋은 세상입니다.》 본사기자 박해방

《엄마》라는 부름을 두고



《엄마!》 이 부름은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익히는 말이다. 《엄마》라 부르며 따르고 안기는 자식을 품에 안을 때마다 가슴에 부드러운 행복, 이 행복을 《독점》한 것은 어머니들의 행운이라 할가. 3살집이 내 딸에는 잠결에 3달집에 대한 꿈을 꾸는 지 보통보통한 손을 나의 목에 얹으며 《엄마》라고 중얼거린다. 자식을 낳아키우는 녀성이란 누구나 듣게 되는 《엄마》라는 부름, 이 《엄마》라는 부름이 안고있는 의미를 내가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다.

며칠전 나는 인민대학습당에서 어린이키우기와 관련된 자료를 열람하던중 우연히 남조선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류달리 나의 관심을 끈것은 남조선에 그 무슨 《아동학대에반대》라는것이 있다는 것이었다.

너무도 귀에 선 말이어서 호기심을 가지고 기사를 읽어 내려가다보니 《센터》라

도 채 감지 못하고 무뎠히 버려졌을 적들이. 그들에게 엄마란 무엇이란 말인가? 안타깝게, 불쌍하게 고사리손으로 용서를 빌 때 인자와 자비란 표출만큼도 없는 그 《엄마》란 인간들이 그들에게 과연 사람으로 보였겠는가.

너무도 어린 나이에 낳아준 엄마들때문에 《엄마》라는 부름을 영영 상실하고 숨겨진 꽃망울들이 하나같이 이 어찌가 무뎠졌을 《살려주세요!》라는 비통한 절규가 나의 가슴을 《엄마》라는 가장 신성한 이름을 모독하고 더럽힌 살인자들에 대한 분노와 저주로 높뛰게 했다.

하다면 이 엄마 아닌 엄마들이 세상에 날 때부터 살인마, 인간중독들이었는가. 사회를 지배하는 썩어빠진 황금만능주의와 반인민적인 악정이 그들로 하여금 살과 피를 갈라 낳은 친자식마저 부모와 혐오의 대상으로 되어 꺼리낌없이 죽이고 매장해버린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다.

사람들사이의 정과 화목은 더 말할것도 없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천시하고 살인하는 매를매덕이 만연하는 사회가 바로 인간성지옥 남조선이다.

가장 아름답고 신성하게 불리워야 할 《엄마》라는 부름이 살인마라는 소름끼치는 부름과 나란히 함께 하는 이런 썩어빠진 사회에서 사랑과 정은 한낱 거저에 불과하다. 잠시 지켜보자.

공화국에 건국 이래 대동단이라고 할수 있는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걱정했는 바로 사랑하는 자식들이었다.

공장, 기업소, 학교와 유치원, 모든 주민세대들이 문을

닫고 격리상태에 있게 되어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먹일 걱정, 앓는 자에 대한 치료 걱정 등으로 가슴을 태웠다. 그러나 그 걱정은 공연한 것이었다.

고마운 우리 당, 우리 국가의 사랑의 손길이 집집마다 미처 식량과 부식물, 기초식품 지어 아이들의 간식에 이르기까지 엄마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생활의 세부까지 다 보살피주었던것이다.

지금도 이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국가적인 격벽초치로 락아소, 유치원에 나오지 못하는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매일 정상적으로 젓제품을 공급해줄 데 대한 사랑의 조치에 따라 집집마다 젓제품을 날라다 아이들에게 공급하던 잊지 못할 그 화폭들이.

정말이지 집에서 젓제품을 받아안은 딸애가 너무 기뻐 환성을 지르며 선생님이 가져온 젓제품을 맛있게 들이키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엄마의 심정은 이루 형언할수가 없었다.

어제 우리 아이뿐이라.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그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았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을 다 합친대도 비길수 없

김혜정

는 한없이 뜨거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받아안으며 찬란한 미래의 주인공들로 자라나는 자식들의 밝고밝은 모습을 바라보는 이룰수 없는 행복감,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모든 어머니들이 받아안은 더없는 행복감과 긍지일것이다.

《엄마!》 이 땅의 천만자식들의 운명과 미래도 다 맡아안아 따듯이 보살피주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어 아이들의 입에 이 레사롭게 울려나오던 이 부름도 후대들에 대한 진정한 모성애의 대명사로 되게 되고 이 나라의 모든 어머니들이 참다운 엄마로 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 《엄마》라는 그지없이 평범한 이 부름말에도 사랑과 정, 대화원, 참다운 인간애, 상과 사랑과 정이란 떨칠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인간성지옥의 극명한 대조가 비껴 있다.

인간성, 악으로 매달린 남조선사회에서 불안과 공포, 범죄의 대명사로 《엄마》라는 부름이 불리운다는 것을 내 딸은 아직 알지 못하리라.

나는 생각한다. 엄마가 엄마답게 사는 우리 공화국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라고.

김혜정

《엄마》라는 부름을 두고

《엄마》라는 부름을 두고

《엄마》라는 부름을 두고

《엄마》라는 부름을 두고

《엄마》라는 부름을 두고

《엄마》라는 부름을 두고

《엄마》라는 부름을 두고

《엄마》라는 부름을 두고

《엄마》라는 부름을 두고



절세위인들과 총련

총련의 대를 굳건히 이어주시려고

공화국의 해외공민권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총련조직의 부흥발전과 민족적권리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가고있는 해외동포들속에는 제일조선청년학생들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 5월 제일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에서 총련부흥의 새시대로 향한 영예로운 진군길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기치는 마땅히 동포청년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일조선청년들이 나아가갈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되새겨볼수록 제일동포청년들을 총련의 대를 이어갈 믿음직한 계승자, 고대자로 내세우시며 조선사회의 근본을 잊지 않고 멋있게 살아나갈수록 나쁜 사람과 믿음을 배려해주는

절세위인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숨얼허 안겨온다.

민족자주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조선청년들의 대정치 축전인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당시) 제7차대회가 준비되고있던 1981년 10월중순 아버지수령님께 삼가 편지를 올릴 제일조선청년학생편지전달계주단이 평양에 왔을 때였다.

22명으로 구성된 계주단성원들이 이역방에서 꿈결에도 못 잊어 그림던 아버지수령님을 만나 비록 영광의 시각을 눈앞에 그려보며 대회가 열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던 그때 대회준비사업을 료해하시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한 일군이 대회 첫날 전국청소년들의 이름으로 수령님께 편지를 올리게 될 인원으로 조곡에서 8명, 제일조선청년학생계주단에서는 2명을 선발하기로 했다는것과 제일조선청년학생축하단의 축기증정은 대회 둘째날에 하기

로 예정되었다는것을 보고드리었다.

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일조선청년학생계주단에서 두사람만 수령님께 인사를 드리게 한다면 나머지 동무들은 얼마나 서운해하셨는가, 머나먼 일본땅에서 총련의 모든 조직들이 보내는 편지를 안고 동해바다를 건너 달려온 그 성의를 보아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계주단성원 22명모두에게 다 수령님께 인사를 드릴 영광을 안겨주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제일조선청년학생축하단이 올리는 축기증정 수령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는 첫날에 올릴 기쁨을 드려야지 둘째날에 올리는 안된다고 하시며 대회일정계획을 다시 세워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주재70(1981)년 10월 20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7차대회장에서는 조형

계주단성원 22명이 한사람씩 주석단앞으로 나가 아버지수령님께 삼가 축원의 인사를 올리는 감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다.

주시는 사랑, 바치는 총정 하나로 융합되어 대회장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던 그 시각 조형계주단성원들을 정중히 바라보시며 누구보다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시는분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어제 그뿐이랴.

주재85(1996)년 1월 19일 공화국청년운동력사의 한페이지에 빛나게 새겨진 화폭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것이었던가.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당시)대표자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시려고 평양체육관에 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대회에 참가한 조형계주단원들을 친히 곁에 데리고 댔다시며 조국의 청년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 매년 그를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었다. 제일조선청년축하단 성원들과 인정에 넘치신 담화를 나누시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형계주단원들을 또다시 찾으시어 이번에는 자신과 기념사진을 찍자고 하시면서 그를 네차례나 자신의 곁에 세워주시는 하해와 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가까이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 있는 자식에게 더 마음쓰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제일조선청년들을 보살펴주시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은 총련의 년대기에 전설로 수놓아져 오도록 제일동포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그날로부터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위대한 아버지의 품에 안기었던 그날의 동포청년들이 오늘도 총련의 어엿한 일군들로 자라나 애국애족의 길을 변함없이 걷고있다.

본사기자 전영민

제2차 《김정은은국무위원장연구발표대회》 진행

— 남조선에서 —

10월 4일 남조선의 진보운동단체인 《국민주권연대》가 제2차 《김정은은국무위원장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단체는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북을 알기 위해서는 김정은은국무위원장의 령도방식을 깊이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18년 11월 서울 한복판에서 《김정은은국무위원장의 서술방향을 환영하는 백두청송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경애하는 원수님을 칭송하는 활동을 활발히 벌여왔다. 이번에 개최한 《김정은은국무위원장연구발표대회》는 2021년에 이어 두번째로 되는 대회이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김정은은국무위원장과 방역대전》, 《김정은은국무위원장의 눈물》, 《김정은은국무위원장과 삼지연시》, 《김정은은국무위원장과 명령》, 《김정은은국무위원장과 혁명동지》, 《김정은은국무위원장과 경부동》, 등 12개 주제의 동영상작품들이 울렸다.

이번 대회의 심사를 맡은 어느 한 대학교의 교수 김창현과 심사위원들은 《한결같이》는 장교 참신한 동영상작품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다. 모든 작품이 북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경제체제를 알고 방역대전을 치르면서도 미소가 넘쳐나는 김정은은국무위원장이 정세가 복잡한 속에서도 전 국방성 총고문 현철해의 서거를 도하여 국가장의식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혁명적동지애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고 격정에 넘쳐 토로하였다.

《국민주권연대》는 이번에 내놓은 12개의 화편전집물들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다음 번 연구발표대회에서는 북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연구를 더 풍부히 한 작품들을 만들어 더 훌륭한 대회로 되도록 하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전영민

을 받았다.

그리고 2020년 당창건 75돐경축 열병식연설에서 인민들에게 무탈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모신 화편전집물 《김정은은국무위원장의 눈물》이 《최우수상》을, 전 국방성 총고문의 서거에 몹시 슬퍼하시며 국가장의식을 최상의 수준에서 하도록 대대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적동지애의 감동깊은 화폭을 담은 화편전집물 《김정은은국무위원장과 혁명동지》가 《우수상》을 받았다.

수상자들은 소감발표자에서 《악성전염병사태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타격을 입고 경기침체를 겪고있는 때에 김정은은국무위원장이 주요 당회의를 여시고 주민생활개선과 경제발전을 비롯한 모든 령역에서 높은 목표를 내세우시고 인민군대에 특별명령을 내리시어 악성전염병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통하여 김정은은국무위원장이 내리는 명령에 담긴 의미를 잘 알게 되었다. 김정은은국무위원장이 주민들모두가 무탈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교 참신한 동영상작품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다. 모든 작품이 북을 리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경제체제를 알고 방역대전을 치르면서도 미소가 넘쳐나는 김정은은국무위원장이 정세가 복잡한 속에서도 전 국방성 총고문 현철해의 서거를 도하여 국가장의식을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혁명적동지애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고 격정에 넘쳐 토로하였다.

《국민주권연대》는 이번에 내놓은 12개의 화편전집물들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다음 번 연구발표대회에서는 북의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연구를 더 풍부히 한 작품들을 만들어 더 훌륭한 대회로 되도록 하자고 호소하였다.

본사기자 전영민

높은 민족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훌륭한 공연

— 2022년도 총련 금강산가극단 안삼불공연이 성황리에 진행 —

얼마전 2022년도 총련 금강산가극단의 안삼불공연이 일본의 기후현에서 진행되었다.

첫 공연을 총련 기후현본부 위원장과 실행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제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이 관람하였다.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가극단 순회공

연의 뜻깊은 첫 무대를 보기 위해 모였다.

공연의 제목은 《저 하늘에》이다. 여기에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그리고 언제나 희망과 깨달음을 그리고 함께 지역의 찬바람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려는 제일동포들의 굳센 의지와 결의가 담겨져있다.

기후현에서 금강산가극단의 공연이 진행되기는 4년만이라고 한다.

이번 공연은 기후현상공회회성 65돐을盛大히 기념하는 동시에 제일동포들에게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고 대외친선사업을 촉진하는 계기점으로 흥성하였다.

《활활 개였네》, 군무 《저 하늘을 나는 철새》, 남성독창 《높은 령 넘어가자》를 비롯하여 제일동포사회에서 창작된 노래들이 관람자들의 흥취를 돋구었다. 공연은 민족무용 《농악》의 흥겨운 춤판으로 막을 내렸다.

관람자들이 훌륭한 공연을 펼쳐보인 출연자들을 열렬한 박수로 축하하였다.

공연을 본 많은 사람들은 《높은 예술성과 함께 출연자들의 정열까지 인조는 공연이었다. 감동으로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보았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소감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전영민

른 하늘》로 막을 올렸다. 푸른 하늘을 리상케 하는 조형과 연출, 독색있는 민족관악단과의 조화를 이룬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흥을 안겨주었다.

련이어 4인무 《흥겨운 새날 소리》, 저대독주 《은하수와 봉황새》, 독무 《바라춤》, 여성독창 《그대되는 처녀》, 군무 《북춤》 등이 무대에 올랐다.

공연은 본 많은 사람들은 《높은 예술성과 함께 출연자들의 정열까지 인조는 공연이었다. 감동으로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보았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소감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전영민



실행위원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선전사업을 추진한 결과 민단과 미소동포들은 물론 많은 일본시민들도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모여온것으로 하여 공연장은 사람들로 흥성하였다.

공연은 여성독창과 무용 《내 나라의 푸른 하늘》로 막을 올렸다. 푸른 하늘을 리상케 하는 조형과 연출, 독색있는 민족관악단과의 조화를 이룬 공연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흥을 안겨주었다.

련이어 4인무 《흥겨운 새날 소리》, 저대독주 《은하수와 봉황새》, 독무 《바라춤》, 여성독창 《그대되는 처녀》, 군무 《북춤》 등이 무대에 올랐다.

공연은 본 많은 사람들은 《높은 예술성과 함께 출연자들의 정열까지 인조는 공연이었다. 감동으로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보았다.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소감을 토로하였다.

본사기자 전영민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살을 빛내인 목사 (4)

조국방문후 선생의 활동은 해외그리스도교세력들을 진보화시키는데서 큰 영향을 주었다.

날씨가 정든 곳을 찾아가듯이 선생은 부인과 함께 1982년 9월 두번째로 조국을 방문하였다.

사실 주변사람들이 먼로 정에서 고령의 몸으로 예기치 않은 불상사도 있을 수 있으나 선생의 가슴속에 애추추는 절세위인에 대한 뜨거운 정모임을 막을수 없었다.

조국방문의 나날 선생은 만경대고향집을 비롯하여 평양시와 남포시내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불과 1년여사이에 새로 일떠선 웅장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을 경탄의 눈길로 돌아보고 어린아이를 시릴 교편을 잡았던 청산리에도 깊은 감회속에 들린 그들은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의 집견을 받는 영광을 지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부인의 건강에 대해 물으시고 김성락선생이 지난해 조국을 방문하고 돌아가서 많은 활동을 한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조국에 와서 보고 가는것을 환영한다. 미국에 있는 교포들이 오수만 있으면 앞으로 많이 와서 조국의 현실을 보고 가는것이 좋다고 하시었다.

그들부부는 조국의 현실을 보고 감동된 심정을 말씀드리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정성담아 마련한 선물을 올리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의 지성에 사의를 표시하시며 그들부부에게 친히 선물을 안겨주시었다. 어느것이나 민족적정서와 절은 귀중한 선물들이는 어디 가서 살든지 한시도 민족의 근본을 잊지 말고 조선사람으로서 참담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가 어려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날 그들부부를 위해 만찬까지 베풀어주시였으며 김성락선생에게 우리는 선생과 같은 애국자들

이 오래 앉아있을것을 원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는것을 영광으로 여기고있다고 하시었다.

중미사대와 반공으로 인한 오행과 편견, 의문과 고집에 얼룩진 선생의 마음속에 그대로 간직되어있는 한가닥 우국지심을 귀중히 여기시어 애국지사로 불러주시고 오래오래 살아야 한다고 극진한 가슴뜨거운 사랑 안겨주시는 사랑.

진정 이것은 주의주장을 넘어 온 겨례를 크나큰 포용력으로 한품에 안아 인생을 빛내여주시는 이 세상 가장 열렬한 인간애, 민족애를 체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배부실수 있는 고결한 사랑과 의리였다.

이날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현관까지 나오시어 아무쪼록 건강을 잘 돌보라고 당부하시며 그들부부가 탄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저어 바래주시었다.

미국으로 돌아간 김성락선생은 고령의 몸이지만 남은 여생을 강그리 바쳐 민족단합을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선생은 로한으로 1989년 8월 3일 세상을 떠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김성락선생이 사망한것과 관련하여 못가 가슴아파하시며 그의 부고를 내고 조국의 여러 사회단체들에서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도록 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생전에 주시던 그 믿음과 사랑을 김성락선생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뜨겁게 베풀어주시었다.

그러하여 조국해방 45돐을 맞으며 조국동맹을 위하여 공헌한 애국인사들에게 조국통일상을 수여한 때에 김성락선생에게도 그러한 영예가 안겨지게 되었다.

인생말단을 민족을 위해 값있게 보낸 애국인사 김성락선생,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애국애족의 곁에 계셔도 두의 빛나는 인생이 있고 민족과 역사앞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영진

적대세력들의 도발을 단호히 짓밟아버리며 (8)

조미대결사에 미국의 수치와 패배를 또다시 새긴 미군정찰적승기적축사건

1994년 12월 17일이였다.

오전 10시 35분경 미군정찰적승기적축사건이 오만무례하게도 공화국적 지역인 고성군 해삼대 남강상류의 골짜기를 따라 150m의 낮은 고도로 금강군 이리리 무산계산까지 종심 7km이상이나 깊숙이 침공해들어왔다.

감시군무를 경각성있게 수행하고있던 인민군 상동병이 적기발견신호를 울리였다.

지휘관의 즉시적인 구령에 따라 군인들은 재빨리 전투진지를 차지하고 사격준비태세를 갖추었다. 지휘관의 전투명령에 따라 제1사수로 임명된 분대장은 사격하지 불리한 조건에서도 원수를 대한 쏘아오르는 중요성, 적기를 무조건 파괴하여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안고 신속히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겼다.

아무진 총성과 함께 적기의 기관부에서 번쩍 불꽃이 튀기고 이어 적기는 돌덩이처럼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떨어졌다.

비행사 한명이 즉사하고 살아남은 다른 한명은 사시나무 떨듯하며 목숨을 살려달라고 빌었다.

적승기는 남조선감정 미8군 소속 항공대의 감시정찰적승기로서 동체가 모두 특수방탄장치로 되어있으며 만전정찰시기에 감시안내정찰임무를 수행하면서 단 한대도 격추되지 않아 《하늘의 고양이》로 불리우는 최심신항기였다.

적승기적승사항에 대해 보고받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이번 미제침략자들에게 우리의 본

때를 단단히 보여주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미제침략군 적승기를 단방에 쏘면 군것들은 그 어떤 원수가 우리의 령도와 령공, 령해를 침범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실지행동으로 보여준것이라고, 이번 사건을 통하여 수령님께서 육성하신 무적장군인 우리 혁명무력의 불패의 위력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고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어 미제침략군 적승기를 단방에 쏘면군 분대장이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였다고 하시면서 그에게 공화국영웅칭호와 중위의 군사칭호를 수여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미국은 비행기적추사건을 놓고 교활한 막후공작에 매여달렸다.

강경고압자세인 공화국에는 범정할수 없다고 판단한 미국은 다른 나라를 내세워 포로된 적승기조종사를 12월 25일(《성탄절》)전으로 찾아 가려고 꾀했다.

미국의 비열한 속심을 간파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적들의 어리석은 책동을 단죄하시며 미군적승기적추사건은 우리 나라가 미국과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하시었다.

하는수없이 미국은 판문점 회담탁에 끌려나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선인민군측은 미군적승기의 공화국평공침입본 아나나 우리의 군사시설에 대한 정찰목적용을 사죄하지 않

조선항공을 습격하여 황후를 살해한 귀족같은 만행

에 따라 일본수비대들은 10월 7일 밤부터 8일 새벽사이에서 사타리를 타고 성벽을 넘어 평화문을 열었으며 저 항하는 여러명의 조선군인들을 살해하고 강북공을 완전히 파괴격하였다.

공간은 삼시에 일본살인마들의 살인, 파괴, 약탈장으로 변하였다.

맛다드는 군너들을 다치는 대로 죽인 놈들은 쓰러진 궁녀들 가운데서 명성황후를 확인하자 범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채 죽지 않은 그를 미리 준비한 장작더미에 올려놓고 불태워죽였으며 남은 유골까지도 못속에 집어던져버렸다.

명성황후에 대한 살해는 당시 왕원에 의하여 대표되던

조선봉건왕조의 국가주권에 대한 잔혹한 유린이었고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불법무도하고 치명적인 반인륜적잔학이였으며 철두철미 조선침략정책에 따라 계획되고 집행된 특대형반국가적범죄였다.

당시 명성황후살해사건에 직접 관여했던 한 일본인까지도 자기 수기에서 《선혈로 물든 민의 시체에는 석유가 뿌려지고 불이 달렸다. 순식간에 시체는 화염에 싸여 이상한 냄새를 풍기였으며 참으로 귀부추추(귀신도 서글프게 운다는 뜻)하였다.》고 고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수성과 교활성, 파렴치성이 체질화된 일본은 명성황후살해의 국가적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실을 외무조준하는 한편

몇몇 하수인들에 대한 《재판》을 벌리는척하다가 얼마 후에는 물레 빼돌리었다.

명성황후살해사건이후 조선은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본은 40여년동안이나 류레없는 식민지파쇼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온갖 불행과 재난을 자기 수기에서 《선혈로 물든 민의 시체에는 석유가 뿌려지고 불이 달렸다. 순식간에 시체는 화염에 싸여 이상한 냄새를 풍기였으며 참으로 귀부추추(귀신도 서글프게 운다는 뜻)하였다.》고 고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수성과 교활성, 파렴치성이 체질화된 일본은 명성황후살해의 국가적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사실을 외무조준하는 한편

를 들먹였다.

《울미사변》이 있을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일본은 오늘까지도 피비린내나는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그 책임이 사 벗어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면서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우리 민족은 일본의 죄악찬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고 있으며 설나라 오랑캐무리들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천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

김광명



일본살인귀족들에 의해 살해당한 명성황후의 장례식

풍자속에 망해가는 비루한 운명

남조선의 윤석열역도 지금 세인으로부터 아우와 조소, 비난과 규탄을 받으며 풍자의 제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미전부터 동에 닿지 않는 소리를 하거나 횡설수설, 동문서답식의 발언으로 《1일1만언후보》, 《무지몽매한 인간》, 《사람잡는 정치인》이라는 야유를 받고 《도리도리》, 《윤도리》, 《떡발남》 등 《도덕적저능아》로 불리운 윤석열역도, 《아래도리만 보고 누군지 알아맞추기》라는 풍자유희의 주인공, 너편네에게 귀여운 《바지입은 안주인》, 《3대머지리》로 비난받아온 회색의 바보, 《정치해내기》인 주제에 《대통령》 후보라고 거들먹거리며 때부터 역도와 그 일가족들의 부정부패와 《책공약》, 동족대결말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동영상편집물과 그림, 사진들이 인터넷에 대대적으로 게재되었고

권력을 가로막고있는 후에도 《술통령》의 본색을 풍자하는 《투표로 음주문화 확실히 개선합시다》라는 대형구호막이 서울 광화문광장과 종로구일대에 게시되는가 하면 《윤석열을 심판하자》는 만평이 인터넷에 실리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윤석열역도를 퇴진, 탄핵시키기 위한 민심의 의지를 반영한 《정치보복, 평화과피, 민생이면, 친일굴욕 윤석열을 퇴진하라!》는 주제의 시국성명발표와 윤석열규탄가회화견, 윤석열퇴진성토모임 등과 함께 각이한 풍자물, 풍자소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윤석열퇴진》이라고 쓴 선전물에 《민생과관》, 《권력사유화》, 《검찰독재》 등 윤석열역도의 퇴진리유를 써붙이는 의식, 《윤석열 폭주를 멈추라!》, 《김건희 특검을 실시하라!》 등의 대형 구호막까지, 역도의 집권이후 공정과 상식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례식, 김건희체포상향공공연, 노래 공연... 얼마전에는 《대통령실》 주변에 마스크를 착용한 윤석열역도가 콘로프의 앞살을 풀어헤치고 알몸풍미를 드러내고 해벌쭈커리는 만화가 10여장이나 나붙어 윤석열역도를 아연하게 하였다.

너우기 만화에는 《마음껏락사하세요.》라는 문구도 적혀있었는데 사람들은 그아래에 《퇴진까지 1초 준다.》, 《세계적망신, 경제폭망 윤석열 퇴진하라.》, 《왜 태어났니.》, 《그냥 내려와.》 등의 글을 써넣으며 역도를 마음껏 조롱하였다고 한다.

또 전남예술평화학교 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만화가 《학생만화전시회》에서 최우수작품으로 평가되어 금상을 수여받았다.

만화는 윤석열역도의 상통을 형성한 증기기관차가 흰연기를 내뿜으며 질주하는데 기관사자리에는 열차를 미친

해 《윤석열이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에서 4주째 연속 세계신기록을 세우고있다.》고 아우하였다.

얼마전에도 《미국의 소리》방송은 윤석열역도의 언론탄압책동을 풍자하여 역도의 사진을 거꾸로 게재하고 남조선방송기자협회들의 공동성명을 소개하였다.

남조선의 남녀로소 가림없이 아우하고 조소하는 풍자극의 주인공, 밖에 나가서도 갖은 구슬수에 올라 《외교망신》, 《외교참사》만 벗어내는 《정치못내기》.

남조선민심의 풍자에는 윤석열역도의 반인민적약정과 사대굴종, 동족대결정책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숨배어 있었다.

동시에 안락에서 아우와 조소를 받으며 멸망해가는 역도의 종말이 비껴갔다.

비루한 목숨을 연장해보려고 아등바등대며 몸부림치는 보수집권자들에게 대한 풍자열풍은 《리명박근혜》시기를 이어 윤석열역도에게로 이어지고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자속에 시대의 폐물인 윤석열역도의 파멸도 시시각각 다가오고있다.

본사기자 김정혁

《미국은 이 땅을 떠나라!》

부산에서 자주평화대행진 진행

보도에 의하면 지난 1일 남조선의 시민단체가 《한미호상방위조약》을 폐기하고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지배를 끝낼것을 주장하는 자주평화대행진을 벌였다.

10월 1일은 지금으로부터 69년전 연속적인 《한미호상방위조약》이 조인된 날이다. 당시 이승만역적패당이 《한미호상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총 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진 이 《한미호상방위조약》은 이른바 《공산주의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하에 미군의 특제공군무력을 남조선의 그 어디에나 마음대로 배치하고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과 이러한 권한은 《무기한 유효하다.》는 데 대해 규정함으로써 미국의 남조선영구강점을 공식화한 침략적이고 매국적인 조약이다.

이 치욕스러운 날을 맞으며 《부산겨레하나》가 부산에 있는 미국령사관앞에서 자주평화대행진을 진행하였다.

《부산겨레하나》 공동대표는 행진에 앞서 미국이 남조선과의 관계에서 정치군사경제적으로 불평등을 강요하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이 땅에 기여해온지 어떤 77년이 되었다. 이제 우리



본사기자 김정혁



사분오열에서 지리멸렬어로

남조선의 《국민의힘》내부가 수라장이다.

얼마전 《국민의힘》의 룬리위원회는 전 당대표 리준석에게 당원권리정지처벌을 1년 추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저들에게 사사건건 맞서는 이전 당대표를 눈에 든 가지처럼 여기던 친윤석열파가 법원으로부터 당규약수정으로 구성된 새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게 되자 이때다 하고 리준석에게 또다시 추가처벌이라는 반격을 가한 것이다.

지금 리준석은 친윤석열파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립장을 밝히고 그의 지지세력도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 추가처벌을 받아야 할 리유라면 막말을 한 윤석열은 왜 처벌하지 않는가, 주민의 70%가 사과해야 한다고 한 윤석열의 막말론난에 룬리위원회는 왜 입을 다물고있는가, 비상사직적인 권위와

공정하지 않은 힘의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있다.

사나운 개 코등 아물 뜬 없다고 당장에 끝이 날것같던 리준석과 친윤석열파와의 싸움은 새로운 양상을 띠고 보자 치열하게 진행될것이라는 것이 여론의 평이다.

손벽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보나실이가 전 당대표를 토끼를 잡으면 사냥개를 삼는 것처럼 다 써먹고 필요없게 되니 원수취급하는 친윤석열파들이나 빼앗긴 권력을 되찾아볼 대상으로 발악하는 리준석과 그의 패거리들이나 한바리에 실어든 기술이 없을것들이라는것은 분명하다.

리준석을 처리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내부가 결코 편안해진것도 아니다.

새 당대표를 선거하는 문제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있기때문이다.

저저마다 인물이라고 하는

자들이 당대표후보로 나서려고 준비하고있는데 어떤자는 《수도권》에서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떠들고 어떤자는 《대통령》선거후보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침방울을 뿜는다.

그런가 하면 누구는 당지지에서 지지율이 1위이다. 또 누구는 일반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위이라고 자기를 내세우느라 목숨을 뿜는다.

《백가쟁명》이라고 저저마다 제 소리로 목소리를 높이는데 덩달아 대구시장이라는 자는 《배신경력있는 사람은 가라. 소신없는 수양버들은 가라.》고 호통치면서 지지율이 높은 반, 비윤석열파를 견제하느라 신경을 쓴다.

그들의 목소리는 서로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 당을 틀어쥐자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더 큰 권력까지 거머쥐자는 것이다.

보나바와 같이 썩은 고기에 히에나들이 달라붙듯 서로 으르렁거리는 역적패당의 형투로 하여 정치는 조종한 날이 없고 사회가 더욱 어지러워지는 것이다.

갈수록 찾아들 줄 모르고 더더욱 치열해지는 역적패당의 내부싸움,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치졸함과 저열함도 서슴치 않는 《국민의힘》은 승악을 부러대며 지리멸렬의 길로 정신없이 줄달음치고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민심이 최악의 남대리지로 굴러떨어지는 민생은 아랑곳없이 개싸움질로 날과 달을 보내는 《국민의힘》것들을 향해 허구한 세월 썩은 정치의 오물탕속에서 찌뚱대로 쪼든 진짜 《적폐의 왕초》들이라고 쓰거온 경멸과 조소를 보내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것이다.

본사기자 안권일

로 되었다.

윤석열역도가 《대통령》선거때 무더기로 람받했던 《장미빛공약》들이 혼적도 없이 허공으로 날아났듯이 이를 달해준다.

《최고의 경륜과 실력》을 광고했지만 《대통령실》은 물론 행정부의 요직들

거주는 특혜와 특권으로 《룡와대》는 부정부패의 소굴로 되고있다. 뿐만 아니라 외세와의 끊임없는 합동군사연습으로 남조선은 최악의 위험지대로 화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인민들이 역적패당을 《날리면》의 명수라고 손가락질하지 않는가.

소문난 잔치 먹물같이 없다고 제가 한 약속도 헌신짝처럼 버리는 윤석열역도는 정치깡패, 인간추물, 부패왕초가 틀림없다.

남조선 각계가 《날리면》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역적패당은 아예 인간사회밖으로 날려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는것은 너무나 응당하다.

윤석열역도가 파멸의 실연으로 구겨막힐 날은 멀지 않았다.

배영일

남조선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나돈다고 한다.

확진된 데의 하면 그 병명은 《윤두창》, 《최고 세계에 전파되고있는 《원숭이천연두》가 변이된 것이 아니다.

이 병에 걸리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멸시와 적대, 중요감만 두드러지고 《위협》, 《도발》과 같은 공포증, 피해망상 등이 합병되며 《대결》, 《전쟁》과 같은 헛소리를 치다가 자멸이라는 종말을 고하게 된다고 한다.

인간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죽음을 선고받게 하는 윤

석열역도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비난과 분노가 함축된 표현이 《윤석열+천연두》 즉 《윤두창》인 것이다.

역도가 집권하여 오를까지의 남조선현실을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윤석열역도가 그렇게 고아대던 《공정》과 《상식》, 《자유》는 사라진지 오래고 친인척, 심복들만 등용되는 《정실인사》, 군부독재를 무색케 하는 《검찰공화국》의 출현, 제 패거리의 권력과 향락을 위한 부패정치판을 치고있다.

역도의 정치보복에 의해 서로 죽일대기를 하는 정치권의 권력다툼은 지속되는 경계위기로 가족이나 협박한 사람들의 생활을 아예 장막처럼 쳐놓았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옛말이 다시금 재현되고 인간들사이의 정과 룬리마저도 무참히 파괴되고있다.

리명박등, 계층간갈등, 세

대간갈등, 남녀갈등, 지역갈등으로 사회는 처참히 쪼개지고 자식이 부모가 부당스럽게 죽어가고 부모가 자식이 시끄럽다고 때려죽이고 칼랑쳐죽이며 애인들사이, 부부사이에서 폭행과 살인이 범람하는 페르세데의 비참한 현실이 비일비재하다.

생물이 너무도 고달파 《내 삶은 생선》이라는 말이 보편화되고 비참한 생을 스스로 버리는 자살자가 너무 많은 《자살왕국》으로 불리우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동안 자살률은 100%이상 증가하고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10만명당 자살자는 23.6명으로 여전히 세계1위라고 한다.

불교에 아버지우과 규환지옥이 있다더니 윤석열역도의 집권으로 남조선사회가 바로 두 지옥을 합친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화한 것이다.

리광희

여성가족부 폐지책동을 규탄배격

남조선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발표에 대하여 야당과 각계층이 거세게 반발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윤석열역도는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행정부의 부서들이 모두 여성들을 채용하고있다. 현재의 여성가족부가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로 전략하였다 하면 《선거공약》으로 내뿜었다.

끝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첫번째 조항으로 박아넣고 《국회》에서 무조건 통과시키겠다고 떠들고있는 것이다.

남조선인구의 반수이상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권리와 지위, 가족,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수립》과 복리, 보호 등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는 역적패당의 책동은 사회적여론을 분노로 끓게 하고있으며 각계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야당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사회적갈등과 정치적싸움을 더욱 격화시킬것이다. 《여성정책》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행정부서를 없애버려 《성평등정책》의 후퇴를 초래할것이다 아니라 여성가족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갈등으로 번져질 여성가족부 폐지를 강행하려 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 《선거공약》이라고 해도 잘못된 《공약》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고있다.



본사기자

인민들이 즐겨 찾는 옥류약수상점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에 옥류관과 나란히 옥류약수상점이 자리잡고있다. 얼마전 우리가 옥류약수상점에 들어서니 곱길새없이 드러나며 약수를 마시고 받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절히 안내하며 밝은 얼굴로 봉사활동을 벌려나가는 이곳 봉사자들의 모습이 대동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어울려 정답게 안겨왔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 홍예순책업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옥류약수는 소화기계동질병을 비롯하여 각종 질병들에 대한 약리효과가 대단히 클뿐 아니라 치료적용방법 또한 다양하다고 하면서

《우리 상점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옥류약수를 마시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약수를 마시며 나누는 사람들의 말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왔다.

《옥류약수야말로 청춘의 활력을 부여하는 (보약)입니다.》
《목은 속달도 푹 떨어진답니다.》
산뜻하게 꾸러진 약수공급실에서 약수를 봉사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느라니 옥류약수가 인민들의 생활에 깃들게 하여주시러 마음쓰신 절세위인들의 은정이 뜨겁게 어려왔다.

다심한 그 은정속에 마련된 봉사지에서 시원하고 건강에 좋은 옥류약수를 마시기도 하고 받아가기도 하는 사람들의 밝은 모습은 상점을 더 환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듯싶었다.



최우수발명가상 첫 수상자들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부기사장 겸 기술발전과장 서승관
서승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부기사장 겸 기술발전과장은 고질감을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비롯하여 CNC호브연마반과 그에 의한 연마방법, 건식공주연마반의 제진장치, 수력타빈날개의 조형방법 등 여러건의 가치있는 발명을 하였다.

여성들의 인기를 모으는 천연미안막

최근 공화국의 의학연구원에서 여성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여주는 새로운 천연미안막을 만들어 내놓았다. 화학첨가제를 쓰지 않고 피부미용 및 보호에 유익한 천연원료들을 고려약학적 및 생물공학적방법으로 가공하여

만든 이 미안막은 건조분말상태의 가루와 용액으로 이루어져있다. 특히기울이 응용된 새로운 천연미안막을 사용하면 피부조직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여 피부속의 오염물질을 깨끗이 제거해주고 피부세포보

여러 부문에서 요구되는 중요대상설비보장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성과로 하여 그는 지난해에 제정된 최우수발명가상 첫 수상자들중의 한사람으로 선정되었다.



로 피부각질화과정을 촉진시킴으로써 얼굴살결을 맑고 부드럽게 하여줄뿐 아니라 피부의 탄력성과 윤활성을 높여준다. 또한 항산화활성과 색소침착억제능력이 높은 천연생리활성물질들의 호상배합작용으로 하여 신속하고 뚜렷한 보습 및 미백(색소 제거)효과를 볼수 있다. 모든 유형의 피부에 다 적용할수 있고 주름살이나 여드름, 주근깨는 물론 진한 검버섯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주는 새로운 천연미안막의 높은 효능은 많은 사용자들속에서 검증되었으며 그에 대한 인기는 날날이 높아지고있다.



묘향산의 룽연폭포

평안북도 향산군에 있는 묘향산 상원동 어구로부터 골짜기를 따라 3.3km 올라가 해발높이 500m정도 되는 지점인 법왕봉 남쪽비탈면에 있는 폭포이다.

높이 84m, 물이 흐르는 길이가 105m가 되는 이 폭포는 묘향산의 수많은 폭포들 가운데서 웅장하고 아름답기로 손꼽히며 누운폭포(와폭)로서 이채를 띤다.

폭포우에는 직경 3m, 길이 1.5m 되는 통소가 있다. 법왕봉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 통소에 차다가 다시 넘어나 떨어지면서 폭포를 이룬다.

유구한 역사, 찬란한 문화 백자롱뿔음무늬붓꽃이



백자롱뿔음무늬붓꽃이는 통을 뚫어세긴한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흰자기붓꽃이다. 높이가 11cm, 직경 10.8cm의 둥근통모양으로 되어있는 붓

꽃이는 몸체부분에 구름속에서 꿈틀거리는 룽의 형상을 뚫어세김법으로 장식하였으며 그것이 아래웃가장자리에 장식한 타래무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있다. 푸른빛이 도는 투명유약을 순백색의 자기우에 맑게 입힌 것으로 하여 이 붓꽃이는 조선봉건왕조시대에 많이 만들어진 원통모양의 붓꽃이가운데서도 형태가 세련되고 색깔이 맑고 깨끗하여 산뜻한감을 준다. 특히 뚫어세김장식이 그 형태와 잘 조화되어 조선봉건왕조 흰자기의 대표적인 유물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문어회

음식감으로 문어 200g일 때 초고추장 20g, 레몬 20g을 준비한다. 문어는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놓는다. 다음 80°C정도의 물을 붓고 재빨리 저으면서 살짝 데쳐 얼음물에 잠그었다가 물을 짜준다. 접시에 얇게 썬 레몬을 돌려담고 물을 짜온 문어를 놓

은 다음 초고추장을 곁들여 낸다. 문어에 많이 들어있는 라우린성분은 고혈압과 동맥경화증을 막고 심장의 기능을 높여주며 간암예방과 치료에 좋다. 문어는 위에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므로 위병환자들의 식사에는 고려해야 한다.



어느 고장이 더 추운가

옛날 두 허풍쟁이가 자기가 사는 고장의 추위에 대해 강조하려고 저저마다 꾸며서 말했다. 《우리 고장이 얼마나 추운지 아나? 사람들이 말할 때 나는 입김이 눈이 돼서 땅에 내린다네. 자네네 고장은 그렇게까지 춥지야 않

겠지?》
《말도 말게. 그것도 추운가? 우리 고장에선 사람들이 말을 하자마자 그 말마디들이 모두 얼음덩어리가 돼서 땅에 떨어져 메꿀때골 골라간다네. 그래서 할수없이 그걸 주어가다가 불에 녹여야만 들을수 있다네.》

연암동과 박지원 (1)

연암 박지원(1737년~1805년)은 18세기 우리 민족이 낳은 뛰어난 실학사상이며 세상에 자랑할만한 문호였다. 그는 우리 나라 중세문학사를 빛나게 장식한 소설들인 《랑만전》, 《허생전》을 비롯한 수많은 문학작품들을 남겼으며 《열화일기》와 같은 방대한 저서를 통하여 본격적절벽에 빠져있던 나라의 정치와 경제,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에 애국적이며 선진적인 견해를 내놓고 그것을 자기의 문학작품들에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구현한 재능있는 문인이었다.

1778년 가을 어느날이었다. 성밖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개성류수병마사 유언호가 말을 지은 군사들을 이끌고 동대문쪽으로 들어오고있었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 어둑어둑해오는 때인데 대령의 선두에는 류수병마사 유언호가 초헌(두바퀴달린 수레)우에 높이 올라앉았고 군기와 해발방망이를 추켜들고 갑옷을 펼쳐입은 장수들이 그 좌우에 벌려선것이 자못 위풍이당당하였다.

유는 여하튼간에 엿드리지 않았다고 괜히 말쑤이 나고 보면 같같이 급한 사람말만 이 손해를 보는 판이라 옆에 엿드려있던 웬 젊은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오, 괜히 드림잡히지 마세요. 유언호가 초헌(두바퀴달린 수레)우에 높이 올라앉았고 군기와 해발방망이를 추켜들고 갑옷을 펼쳐입은 장수들이 그 좌우에 벌려선것이 자못 위풍이당당하였다.》

봉건적왕반보수파들의 박해를 피하여 10여년간 생활한 개성시 연암동(현재 장풍군 연암동)은 그의 생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자기의 호를 《연암》(제비바위)이라는 고장 이름을 따서 지은것만으로도 그가 연암동을 자기의 생애와 어떻게 결부시켰던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연암 박지원의 다방면적인 학문연구와 문학창작, 그의 생애와 활동에 대하여 이 작은 글에서 다 이야기할수 없음을 물론이다. 다만 그의 생애중에서 연암동과 관계되는것들만 역사자료에 근거하여 재현해보련다.

《그때, 개성류수행차는 처음이요...》
《어디서 오시나이까?》
《음, 서울사는 사람이네만 오기는 멀지 않은데서 오는 길일세. 그런데 젊은이는 개성서 사나?》 이번엔 량반 쪽에서 물었다.
《그렇소이다. 금학골 막바지에서 사오이다.》

《금학골이라면 내게두 낮은 곳일세. 그 동네에 (만휴당)이라는 정자가 있을텐데...》
《예,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정자가 있다는 말은 들었나이다.》
중년량반은 잠시 지나가는 군사대렬을 바라보다가 또 아까처럼 절절 웃었다.
《왜 웃으시오이까?》
젊은이가 호기심이나서 묻자 중년량반은 《허허... 자못 훌륭하군.》 하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금 저 앞에서 초헌을 타고 지나가는 류수

정사화하고 면역계통을 강화한다. 그밖에도 양배추에는 비타민C와 칼리움 등이 풍부히 들어있다. 감자 감자는 건강에 유익하고 영양가가 높다. 감자의 아미노산들은 흡수가 잘된다. 순무순무는 항진균 및 항균작용을 하며 일부 진균들의 증식을 지연시키는 식물성항생물질과 항균활성물질인 리조피신을 함유하고있다. 순무우에도 유익한 물질들이 풍부히 들어있다고 한다.

연암 박지원은 말고삐를 당겨 걸음을 재촉하였다. 연암골은 개성에서 30리밖에 안되는 금천지경인데 마을앞 개울가에 높이가 너댓길 되는 연암이라 불리우는 큰 바위가 있기때문에 동네이름을 연암동이라 불렀다. 연암은 이곳에 와 살면서 자주 개성에 다녀가곤 하였다. 지금도 규장각 직제학으로 있다가 지난 겨울에 개성류수로 나온 사경(별호) 유언호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방금 곁에서 연암은 군복을 입고 초헌우에 높이 앉아 위엄을 풍기는 사경을 알아보다.



《어디서 오시나이까?》
《음, 서울사는 사람이네만 오기는 멀지 않은데서 오는 길일세. 그런데 젊은이는 개성서 사나?》 이번엔 량반 쪽에서 물었다.
《그렇소이다. 금학골 막바지에서 사오이다.》

연암이 사색당쟁으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한양생활이 고달파 연암동골짜기로 들어와서 초가삼간을 지어놓고 화전을 일구며 문공하게 지내는데를 늘 딱하게 생각하고있던 유사경은 자신해서 규장각 직제학자리를 내놓고 개성류수벼슬을 버리고 개성으로 왔다. 순전히 연암의 생활을 도와주며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였다. 쉽지 않은 우정이고 의리였다.

연암이 사색당쟁으로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는 한양생활이 고달파 연암동골짜기로 들어와서 초가삼간을 지어놓고 화전을 일구며 문공하게 지내는데를 늘 딱하게 생각하고있던 유사경은 자신해서 규장각 직제학자리를 내놓고 개성류수벼슬을 버리고 개성으로 왔다. 순전히 연암의 생활을 도와주며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였다. 쉽지 않은 우정이고 의리였다.